

한국 현대미술사에 족적 ‘단색화’ 작품 한 자리

CULTURE

2025년 4월 23일 수요일

‘단색화: 무한과 유한’ 주제 하정웅컬렉션展

내달 25일까지 하정웅미술관·회화·아카이브
이우환·곽인식·박서보 등 5개 섹션 구성 진행

하정웅 명예관장의 기증진신을 기리기 위해 마련된 하정웅컬렉션이 올해도 관람객들을 만나고 있다. 특히 하정웅 명예관장의 기증 실전은 아무나 실전할 수 없기에 더 사표가 되고 있다. 하 명예관장은 1993년부터 현재까지 광주시립미술관에 2603점의 작품을 기증했다. 이렇게 소장하게 된 작품들은 광주시립미술관의 기증작품의 퀄리티를 끌어올리는 데 충분했다.

하정웅컬렉션의 의미와 가치, 그리고 메세나 정신을 기리기 위해 마련된 전시에는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작가들의 소장품이 가득하다. 이번 작품들을 접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광주시립미술관(관장 윤익)은 ‘단색화: 무한과 유한’이라는 타이틀로 2025년 하정웅컬렉션전을 지난 3월 21일 개막, 오는 5월 25일까지 하정웅미술관에서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출품작은 회화 48점과 아카이브 30여점 등 총 80여점

‘단색화: 무한과 유한’이라는 주제를 내세운 이번 전시에는 1970년대를 기점으로 확산한 한국 단색화의 대표작가인 이우환을 비롯해 곽인식, 박서보, 하종현, 정영렬, 허황, 최명영, 윤형근, 정상화 작가 등의 작품이 출품돼 선보이고 있다.

한국 현대미술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단색화 작가들의 작품을 살펴

볼 수 있는 이번 전시는 ‘점과 선, 그리고 여백’, ‘표면에서 빛으로’, ‘시각적 촉각’, ‘사유의 시간’, ‘반복, 시간의 축적’ 등 5개 섹션으로 구성됐다.

첫 번째 ‘점과 선, 그리고 여백’ 섹션에서는 이우환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 이우환은 한국을 대표하는 현대미술 작가로 모노하(物派) 운동의 이론적 기반 정립에 기여한 인물이다. 197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점과 선’ 시리즈는 작가의 어렸을 때부터 습득한 전통 서예와도 연결된다. 이는 단순히 보이지만 그 속에는 물질과 공간, 깊은 동양적 사유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그의 작품에 구현된 반복적으로 찍힌 점과 그어진 선은 신체의 움직임에 동반한 수행적 행위이며 동양적인 기와 생명력을 구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두 번째 ‘표면에서 빛으로’ 섹션에서는 곽인식 작품이 출품됐다. 곽인식은 일본의 모노하(物派) 운동과 1970년대 한국의 단색화 기반 형성에 중요한 작가이다. 그는 모노하의 흐름이 쏘트기 이전인 1950년대부터 이미 사물의 물성을 주제로 다양한 실험적인 작업을 해왔다. 1970년대 중반부터는 둥근 붓으로 일본 종이 화지(和紙)에, 작은 타원형의 맑고 투명한 일정한 색상 점을 찍는 평면작업을 중점적으로 진행해 왔다.

세 번째 섹션 ‘시각적 촉각’에서는 하종현, 정영렬의 작품이 선보인다. 하종현과 정영렬은 재료의 물성을 강조하는

형식을 취하며 촉각성을 시각적으로 드러내고 한지와 대마천, 그리고 물감이 가지고 있는 물성을 최대한 살려 작업을 한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물질의 질감과 물질의 속성을 고민하고 화면의 본질적인 개념을 추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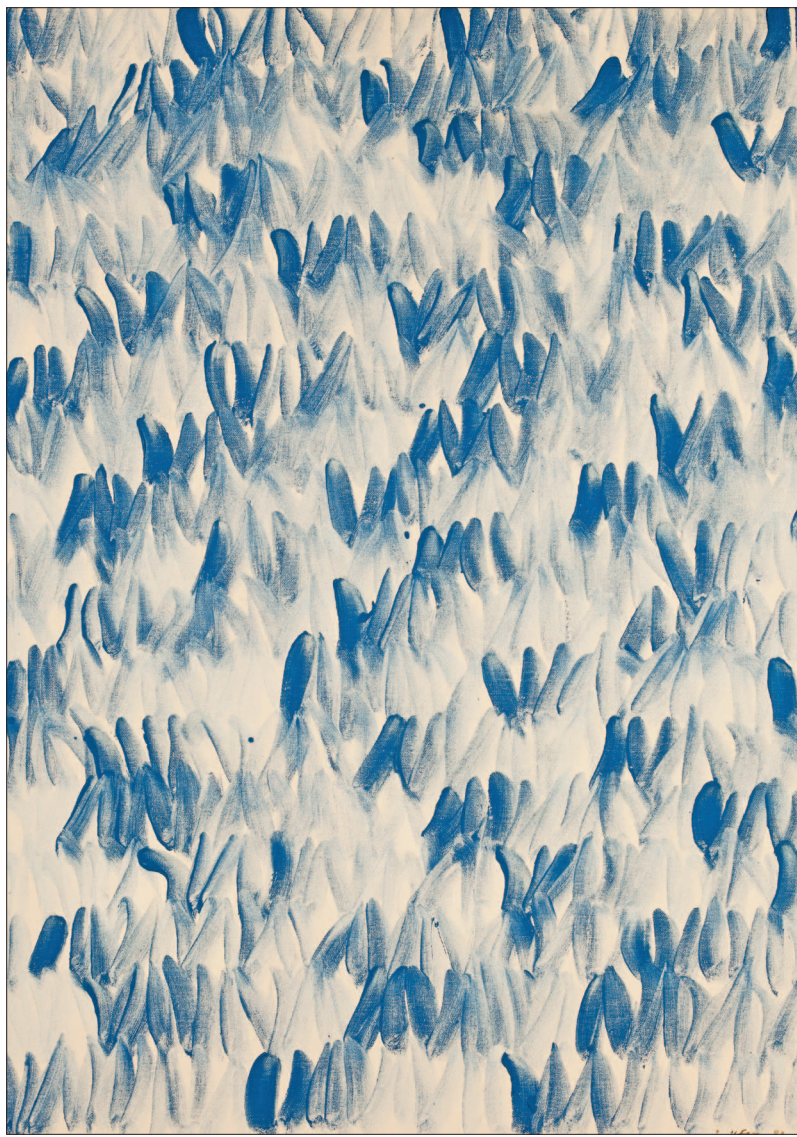
네 번째 섹션 ‘사유의 시간’에서는 박서보의 대표 작품을 접할 수 있다. 박서보는 1973년에 공식적으로 발표한 ‘묘법’ 시리즈는 일정한 패턴과 반복된 선으로 이뤄지며 행위의 반복을 통해 화면은 균질적으로 보이게 하는 작품이다. 작가의 작업은 멀리에서 보면 평면으로 보이지만 가까이에서 보면 무수히 반복된 선을 확인할 수 있다. 작가의 반복적 행위는 자기 성찰의 과정의 연장선이며 자신을 뒤돌아보는 수사학의 관점이 내재돼 있다.

이외에 마지막 섹션 ‘반복, 시간의 축적’에서는 허황, 최명영, 정상화, 윤형근의 작품을 관람할 수 있다. 1970년대 단색화의 반복적인 그리기 행위는 강압적인 군정 속에서 저항감과 의지, 철학적 사유를 담아내는데 효율적인 양식으로 선택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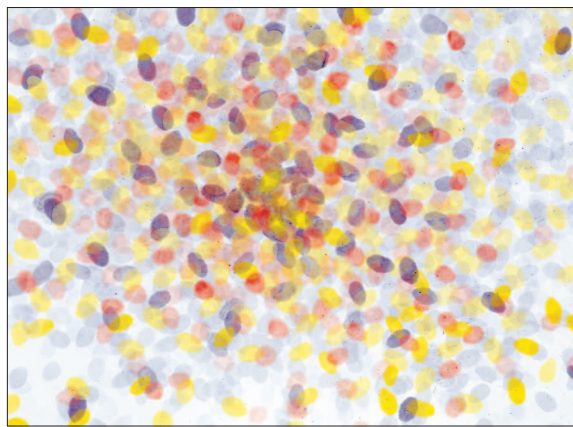
작가들은 점찍기, 선 그리기 등 반복된 행위가 지속되면서 완성한다. 한국 단색화 대표작가인 허황, 최명영, 정상화, 윤형근은 신체성을 강조한 행위의 반복을 통한 수신을 통해 무한한 정신성의 드러내는 내적 의미를 강조한다. 윤익 관장은 이번 전시에 대해 “하정웅 명예관장의 메세나 정신을 되새겨 보고 한국을 대표하는 단색화 작품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전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립미술관은 하정웅 명예관장 같은 분들의 기증에 힘입어 지역 공립미술관 중 손꼽히게 우수한 소장품을 보유하고 있다.

고선경 기자 rainidea@gwangnam.co.kr



이우환 작 'From Point' (1982)



곽인식 작 'Work 81H' (1981)

ACC재단, 10주년 전시 자료 수집

내달 4~5일 접수...온라인 참여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ACC재단, 사장 김선옥)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 10주년을 맞아 어린이문화원과 관련한 시민들의 기억 속 물품과 자료 등을 공개 수집한다.

그동안 어린이문화원을 방문했던 어린이와 가족들이 함께 전당 10주년을 기념하고 축하할 수 있는 특별한 전시를 만들기 위해 기획된 행사다.

수집 대상은 어린이문화원에서의 소중한 기억이 담긴 물품과 이미지, 소리, 동영상 등이다.

수집 물품과 자료는 오는 11월 25일 개막하는 어린이 특별전시 ‘판타지 인벤토리’(Fantasy Inventory)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전당재단은 오는 5월 4일과 5일 열리는 ‘ACC 어린이·가족문화축제 하우펀 11’ 행사 기간 중 어린이문화원 로비에 ‘기억의 인벤토리’를 설치하고, 현장에서 물품과 자료들을 받을 예정이다.

또 오는 9월 30일까지 전자 우편(inventory@acc.or.kr)을 통한 온라인 참여도 가능하다.

행사 참여자 중 전시 활용 자료로 선정된 35명에게는 오는 11월 ‘판타지 인벤토리’ 전시 개막 후 특별한 기념품을 제공한다.

전당 개관 10주년 기념 특별 전시로 마련한 ‘판타지 인벤토리’는 오는 11월 25일부터 어린이문화원 다목적홀에서 열린다.

‘환상의 수납장’을 의미하는 이번 전시는 전당 어린이문화원과 함께 성장한 어린이와 가족들의 기억을 되짚어보고, 새로운 미래를 열 또 다른 기억을 만들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ACC재단이 운영하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어린이문화원은 아시아 여러 나라의 문화와 예술을 소재로 다양한 놀이와 체험·예술적 창작활동을 통해 어린이의 호기심과 상상력을 자극하는 어린이 문화발전소다.

김다경 기자 alsqsl94@gwangnam.co.kr

차세대 ‘웰메이드 영화’ 광주극장에서 만나볼까

2025년 봄 가장 주목해야 할 차세대 감독들의 영화와 웰메이드 감독 애니메이션이 광주극장에서 개봉한다.

30년 만에 칸영화제 경쟁부문에 초청된 인도 영화로 심사위원대상을 수상한 ‘우리가 빛이라 상상하는 모든 것’은 23일 개봉한다.

인도 뭍바의 한 병원에서 일하는 여성들의 일상을 통해 빛과 어둠, 상처와 치유, 독립을 이야기하는 영화로, 인도 출신 파알 카파디아 감독의 첫 번째 극영화다.

다양한 인도 사회의 축소판인 뭍바이를 환출하고 몽환적인 이미지로 그려내는 동시에 그 속에서 노동하는 여성들의 서사를 섬세하게 담아 공감력을 끌어올린다.

뉴욕 타임스, 할리우드 리포터, 인디와이어, 사이드 앤 사운드, 필름 코멘트, AP 선정 ‘올해 최고의 영화 1위’에 올랐으며, 까이에 뒤 시네마, 타임지, 롤링 스톤, 가디언 등 해외 유수 매체들이 2024년 최고의 영화 중 하나로 꼽으며 찬사를 보냈다.

같은날 개봉하는 ‘이제 다시 시작하려고 해’는 14년을 사건 커풀이 헤어지길 결심하고 이별 파티를 계획하며 벌어지는 이야기로, ‘어거스트 버진’(2019), ‘와서 직접 봐봐’(2022) 등으로 유럽에서 가장 촉망받는 작가주의 감독으로 떠오른 스페인

칸영화제 심사위원대상 인도 영화
‘우리가 빛이라 상상하는 모든 것’

네오 소라 장편 데뷔작 ‘해피엔드’
클레이 애니 ‘달팽이의 회고록’ 등

호나스 트루에바의 최신작이다.

이별 파티란 이벤트를 통해 관계의 진실에 접근해 가는 두 남녀의 모습을 유쾌하면서도 진지하게 그리는 가운데 헤겔, 니체 등 근현대 철학부터 할라우드 로맨틱 코미디와 베리만 같은 영화 거장까지 ‘관계’를 논하는 두터운 레퍼런스들이 지적, 정서적 호기심을 자극한다. 지난해 칸영화제 감독주간에 초청돼 유럽 최우수 영화상을 수상하고, 카이에 뒤 시네마 ‘올해의 영화 톱10’에 오르며 외신의 호평을 얻었다.

30일 개봉을 앞둔 ‘해피엔드’도 주목할 작품이다. 지진의 위험이 드리운 근미래 도쿄에서 세상의 균열과 함께 미묘한 우정의 균열을 마주하게 된 유타와 코우의 이야기를 그린 성장 드라마다. 고류이치 사카모토의 마지막 연주를 담은 콘서트 필름

‘류이치 사카모토: 오퍼스’로 국내 관객들에게 눈도장을 찍은 네오 소라 감독의 장편 드라마 데뷔작으로, 청춘의 에너지를 감각적으로 담아낸 연출과 사회를 관통하는 메시지의 조화를 통해 최대 영화 평론 사이트인 로튼토마토에서 신신도 지수 93%를 기록했다. 또한 베니스국제영화제, 토론토국제영화제 등 유수 영화제에 초청되는 등 세계 평단의 주목을 받고 있다.

스톱모션 클레이 애니메이션의 대가로 손꼽히는 에덤 엘라이트 감독의 신작 ‘달팽이의 회고록’도 30일 개봉한다.

거듭 덮쳐오는 불운한 운명 속에서도 인생의 희망을 찾아가는 그레이스의 성장을 담은 작품은 8년의 제작 기간과 7000여개의 오브제, 13만5000장의 캡처로 담았으며, AI, CG가 사용되지 않은 100% 휴먼 메이더로 스톱모션 클레이 애니메이션 연출과 제작에 열정을 쏟았다.

제33회 안시국제애니메이션영화제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은 ‘매리와 맥스’에 이어 2024년에 두 번째 대상을 수상했고 제97회 아카데미시상식 장편 애니메이션 부문 후보 선정, 제25회 선댄스영화제 개막작, 제59회 베를린영화제 크리스탈곰상 특별 언급 등 유수의 영화제에 초청됐다.

자세한 정보는 광주극장 네이버 카페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다경 기자 alsqsl94@gwangnam.co.kr



수용소로 돌변한 주정공장의 아픔 상기

안오일 작가 ‘4·3항쟁’ 주제
친근한 그림 동화로 형상화

제주 4·3항쟁 공간들을 찾다보면 주정공장 수용소 4·3역사관이라는 곳이 있다. 주정공장 수용소 공간은 무고한 생명들을 탄압했던 제주민들의 처연한 아픔을 증언하는 곳이다.

제주 항쟁 때 행방불명된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해 건립된 공간으로 4·3항쟁 당사자들이 반드시 둘러보는 필수코스인 하나다. 제4·3항쟁은 광주 5·18항쟁과 맞닿아 있다.

광주는 제주의 아픔을 그 다른 어떤 지역보다 이해의 폭이 넓다. 이런 가운데 5·18항쟁의 정신이 서린 광주 사람이 제주4·3항쟁의 기억을 담고 있는 공장을 통해 그날의 아픔을 되새기는 동시에 희생자들을 잊지 말고 원혼들을 위로하며 항쟁정신을 계승하자는 취지로 집필한 그림동화가 나왔다.

광주를 연고로 시와 아동문학, 청소년 소설 등을 꾸준히 집필하며 폭넓은 문단활동을 펼치던 안오일 작가가 역사가 살아있는 그림동화 ‘기억 공장’을 노는날 그림책 22번째권으로 펴냈다. 그림은 조형예술을 전공한 뒤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 중인 신진호씨가 맡았다.

이 그림동화는 주정 공장에 담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이야기들이 펼쳐진다. 주정을 만들고, 사람들의 희망을 담은 공장은 한순간에 절망이 가득한 공간이 되는 과정을 알 수 있



다. 하지만 공장은 그 터에 다시 세워져 참혹한 기억을 노래한다. 스토리는 주정공장의 평화로운 일상이 펼쳐지던 어느날 무거운 군홧발 소리가 들려온다. 주정 공장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하나 둘 쫓겨난다. 공장 관리인에서부터 공장에서 일했던 찬희 아빠와 찬희도 그 모습을 감춘다.

그런데 텅 비어있는 주정으로 최첨단 사람들이 불들과 간헐기 시작한다. 감옥으로 바뀐 것이다.

주정공장은 1943년 설립된 동양척식주식회사 제주 주정 공장이 본이름으로 해방전후 제주의 주요 산업시설이었으나 4·3당시 수용소로 활용되면서 역사적 풍파의 공간이 됐다. 혹독한 고문 후유증과 열악한 수용 환경 때문에 죽어나가는 사람이 많았다. 이 그림동화는 이런 역사의 어두운 단면을 상기시킨다. 특히 어린이 독자들에게 쉬운 이해를 위해 활자수를 줄이고 그림을 통해 친근하게 다가가고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고선경 기자 rainidea@gwangnam.co.kr

